

肝癌의 예방과 치료

간암은 국내에서 위암 다음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보다 6배 정도의 높은 발병율을 갖고 있다. 또한 거의 50대의 연령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간암을 50대 의병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간암의 원인이란 생각되어지는 원인은 많지만 그 대표적인 몇가지를 든다면.

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는 곰팡이독 특히 아플라톡신(aflatoxin)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형간염바이러스와 곰팡이 독이 복합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식물성 알카로이드에 의해 야기될수 있다고 여겨진

몸이노곤하고소화가안되는등대부분肝경변증세와동일

아플라톡신·식물성알카로이드및방부제등이原因물질

바이러스 B형肝炎 예방이 무엇보다重要

첫째로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로써 B형간염바이러스 DNA가 간암세포에서 발견되는 것을 들수있다.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에 간염되면 급성간염에서 만성간염으로 다시간

다. 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우 곰팡이가 많이 낀 땅콩을 식량이 부족하므로 어려서 부터 많이 먹는데 이들에게서 높은 빈도의 간암이 발생하는 것을 볼때 알수 있다. 또는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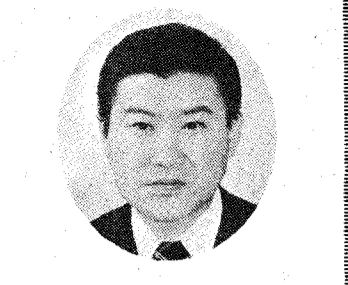
다. 이것은 심각한 간독이 된다. 한약제로 사용되는 부자나 그외의 식물성약제들에서 알카로이드가 발견되어지고 있다.

넷째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같은 몇몇 첨가물에 의해 야기된다. 방부제의 경우 주성분이 질소(Nitrate)인데 이것이 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인 아민으로 까지 진전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있다. 또 버터에 들어있는 황색소(axocompound)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번째는 유전적 소질을 들수있다. 이것은 가계를 조사해 볼때 통계적으로 특정가계에 많은 간암환자가 있는것을 볼때

얼굴색이 거칠고 혈관확장의 느낌이 든다. 털이 빠진다. 여자의 경우 경도가 불규칙해진다. 여드름이 난다. 황달이 생긴다. 심한경우 배에 물이 고인다. 체중이 줄고 미열이 나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밤에 바늘로 찌듯 아픈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간암의 의사의 진단에 의해 명백히 간암으로 진단되면 취할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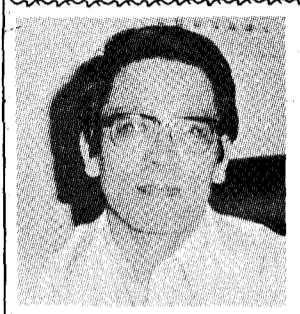
먼저 사람의 간의 경우 하나로 보이지만 혈관이 갈라진 것을 살펴보면 3엽으로 나뉜다. 그것은 좌엽 우상엽 우하엽이다. 따라서 간암이 좌엽에 국한



金丁龍

〈서울의대〉
〈내과교수〉

된 경우 좌엽절제술로 간암을 치료할수 있다. 우엽의 경우도 비교적 우하엽에 있으면 수술 성공율이 높다. 또한 좌, 우에 전부암이 전이되어 있으면 간이식수술이나 함양요법을 사용한다. 이함양요법의 경우 사람에게 따라 효과가 다르지만 생명연장의 효과가 있음이 확증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우 간암의 진단이 떨어지면생명이 6개월을 넘지못하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치료방법에 의해 5년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에는 방목으로 B형간염에 걸리지않도록 조심하고 음식물섭취에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을 심각한 간독이 된다. 한약제로 사용되는 부자나 그외의 식물성약제들에서 알카로이드가 발견되어지고 있다. 넷째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같은 몇몇 첨가물에 의해 야기된다. 방부제의 경우 주성분이 질소(Nitrate)인데 이것이 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인 아민으로 까지 진전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있다. 또 버터에 들어있는 황색소(axocompound)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번째는 유전적 소질을 들수있다. 이것은 가계를 조사해 볼때 통계적으로 특정가계에 많은 간암환자가 있는것을 볼때

金眞浩
서울의대재활의학교수

계단오르기기를하며...
아무래도 나 자신에 대한 불만, 발로라고 생각된다. 아직 시작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까닭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큰것은 그 작은 공을 때려맞출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또 아니다. 성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을 체중이 조금 늘어가는 것을 보면, 그나마도 운동이 없으니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속마음은 걱정이 짙어지고 있다. 3층까지는 힘차게 뛰어오른다. 4층까지는 힘들이고 오

성인병교실 무료강좌 강연내용 요지



孫皓永
〈가톨릭의대〉
〈내과교수〉

자가면역기능低下등인슐린부족으로發病
적절한運動및식사療法이최선의치료대책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사해 보면 조직적합원중 특정항원인 HLA-B₈, B₁₆, D₃, D₄ 등을 가진사람이 많은것을 볼때 유전적으로인인 작용함을알수있고, 또한 최근에 밝혀진바로는 비만한 사람인 경우 당을 혈액에서 세포내로 전달하는 인슐린수용체가 비활성화되어 그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제 2형에 속한 당뇨환자는 인슐린을 나오는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치 못한경우가 많으므로식이요법으로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며, 적절한 운동요법이 우선하여 치료의방법이 되며 필요에 따라 웨장을 자극하여 인슐린분비를 많게 하는 혈당강화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치료에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경우는마지막으로 인슐린을 투여하게되는것이다. 아울러 당뇨병은 평생치료를 요하는 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면 살아가는데 있어 하등의 어려움이 없는병이다. 또한 인슐린제조에대한 기술로 눈부신 발전을하여 현재는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사람의 인슐린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당뇨의 치료에 대해 점점 밝은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추세로나아간다면 2천년대가 되기전에 당뇨병은 완치 가능한 병이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 남처럼 헬스클럽이나 사우나를 찾기도 싫다. 2, 3층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어쩌다 기회가 되면 산에 오르는 일이 있긴하나 매일처럼 오르내리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가뜩이나 공기나뒀 산에 오르는 것은 어렵다. 맛지않는게 있다고 여

관절염증상이사라지는患者
관절염증상이사라지는患者...
관절염증상이사라지는患者...
관절염증상이사라지는患者...

당뇨병은 먼 이집트시대부터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가 긴 만성소모성 질환이다. 이러한당뇨병의 예방적인 면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말하지 않을수 없다. 85년 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열린 WHO의 당뇨병연구회의의에서 이제까지 분류했던 2가지분류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여 3가지로 원인별 분류를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제1형 당뇨병(유아형)과 제2형당뇨병(성인형)에다가 제3형당뇨병(영양실조당뇨)을 추가한 것이다. 이 제3형 당뇨병의경우는 우리의 실정에서 거의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제1형과 제2형당뇨병의 원인에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제1형당뇨병의 경우 주요원인으로 들수 있는 것은 유전적소질이다. 이것은 양친이 다 당뇨병인자의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0%정도로 나타나고 한쪽만이 당뇨병을 가진 자녀의 경우는 10~25%정도 나타나실제 경우를 통해 알수있다. 두번째 원인은 바이러스의 감염이다. 즉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여 인슐린을 공급하는 췌장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 다섯째는 자가면역의 이상이 생겨는 경우이다. 즉 면역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자신의 췌장을 파괴하여 인슐린생산을 막는것이다. 따라서 이 제1형당뇨병은 절대적인인슐린부족증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을 맞아야 하고 아울러 운동요법과 식사조절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치료가 가능하다. 제2형당뇨병의 경우 원인은 좀더 다양하다. 그 주요원인을 지적한다면 첫째가 유전적요인 둘째는 비만증, 셋째는 심한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넷째는 여성의 경우 임신, 다섯째는갑기나열병 같은 감염등에 의해 생긴다. 이에 속하는 환자들

특히 여기서 유의해야 할점은 인슐린의 부족으로 인해혈액속으로 포도당이 흡수되지못할경우, 포도당의 부족으로 지방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극도의 상태에서 지질성분을사 사용하다보면 찌꺼기가산으로 변하여 케톤체가 축적되고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이 유발되는 것이다.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보다즐거운 생활이길...

증세는 의식이 소실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한다. 처치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병원에 가는 것이 좋으며 인슐린을 꼭맞고 몸이 피로운 일이나 염증이 생기면 의사의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